

중국 고대기독교 경교의 『성경』 번역

이 수 연
(충남대)

1. 서론

기원전 3세기 『70인역 성경(Septuaginta)』의 구약성경 번역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성경』번역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성경』은 2013년 말 현재까지 2,551 종류의 언어로 번역되었다.¹⁾ 그래서 『성경』은 단일 텍스트로서 가장 많은 번역본을 보유하고 있다. 동일한 언어권 안에서도 시대마다 언어습관과 어체와 어휘가 변화하기 때문에 『성경』번역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번역을 반복하면서 『성경』번역의 이론과 기술이 축적되었고, 그것은 20세기에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라는 학문이 독립된 학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²⁾

1)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6,500여종의 언어 중 약 1/3인 2,551종의 언어로 성경의 전체 혹은 일부가 번역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5월 1일 현재 2013년 통계까지만 발표됐다.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기독교³⁾가 로마를 거쳐 동방과 서방 기독교로 분리되었다. 서방기독교는 서진(西進)하면서 서양권의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서양의 성경번역은 서구 역사와 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아시아의 서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진(東進)한 동방기독교는 중국 당(唐)나라에까지 기독교를 전했다. 중국의 고대기독교는 ‘경교(景敎)’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며 성경을 중역(中譯)했다. 본고는 동방기독교로부터 전해진 중국 경교의 번역문헌 중 중국어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⁴⁾ 발굴된 번역문헌 사료 중심으로 경교의 번역과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동방기독교와 중국 경교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전한다. 중국 기독교 역사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7세기 중국 고대기독교 경교 연구에 앞서 1세기 기독교의 발원부터 동방기독교의 중국 전래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동방기독교와 경교의 정통기독교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통성의 기반 위에 수행된 경교의 『성경』 번역에 대해 그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유진 나이다(Eugene Nida)는 성경을 직접 번역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번역이론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번역이론은 번역텍스트의 한계를 넘어 번역학의 학제독립에 큰 공헌을 했다.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은 성경번역의 역사는 서구 문화사의 축소판이라고 언급하며 번역학에서 성경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김지원·이근희 옮김 2004: 83).
- 3) 히브리어 ‘메시아’는 헬리어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로 번역해 통용되었고, 이 헬리어를 중국어 ‘기리사독(基利士督)’으로 음역했다. 중국어에서는 이 어휘의 1,4음절을 뽑아 두 음절로 축약해 ‘기독(基督)’이라는 번역어를 생성했고, 이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통용되고 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야훼와 예수 메시야를 믿는 메시야교, 즉 그리스도교이다. 이는 가톨릭과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에서 분파한 개신교를 통틀어서 일컫는다.
- 4) 경교 관련 번역문헌 중에는 중국어번역본 외에도 투르판 지역에서 리투아니아어, 중국고대 페르시아어, 신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위구르 돌궐어 성경번역 사본들이 존재한다(李超 2012: 52-54).

2.1 경교의 근원 - 동방기독교

1세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기독교는 이 지역을 식민통치하던 로마제국이 위협으로 느낄 만큼 교세가 빠르게 확장됐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로마는 AD 70년 기독교의 중심도시인 예루살렘을 전멸하고 로마 통치권 내의 기독교인을 핍박했다. 이때 일부 기독교인은 페르시아로 망명하여 그곳에 정착했다. 로마와 적대관계에 있던 페르시아는 로마정부가 박해하는 기독교인들을 호의적으로 포용했다. 기독교인들은 찬란한 헬라 문명을 시리아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개인마다 독특한 기술이 있어 페르시아 경제와 문화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페르시아로 이주해 갔다.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선대 황제들의 기독교 정책과는 달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 페르시아는 적국 로마가 기독교 포용정책을 펴자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일변하여 가혹한 핍박을 시작했다.⁵⁾ 페르시아의 기독교인들은 무차별 학살과 박해를 피해 다시 망명을 떠나 페르시아 동쪽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다.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에 네스토리우스(Nestorius)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신학과 시릴(Cyri)이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 신학이 로마기독교를 이끌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들 두 파간의 의견 차이는 점점 더해져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했다. 시릴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를 열어 황제의 비호하에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단죄하여 유배 보내고, 그의 신학적 주장에 동의하는 자들을 폄하하여 ‘네스토리안(Nestorian)’이라 부르고 박해했다.⁶⁾ 네스토

5) 페르시아의 사프르(Sapor) II세 때의 40년(339-379년) 박해 기간 중 2주일간 무차별 학살로 16,000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다. 실제 순교 인원은 기록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본다. 420년 바람V세가 즉위하여 가혹한 기독교박해를 시행해 446년 이라크 북부지역에서만 15만 3천명이 순교했다(김호동 2002: 98-10).

6) 경교의 영문명칭 중 네스토리안 분파를 의미하는 ‘네스토리아니즘(Nestorianism)’이라는 번역이 있다. 이는 그 정체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당하지 않은 번역어이다. 중국에 전래된 동방기독교 안에는 네스토리안 분파 뿐 아니라 야곱분파(Jacobite Christian)와 시리아기독교의 하나인 멜카이트교파(Melkites) 등 여러 분파의 기독교

리안이라 불린 이들은 시릴을 피해 로마를 떠나 페르시아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1세기부터 이주해 있던 토착 페르시아 기독교인과 합류하여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다.

439년 페르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셀루키아-크테시폰에서 갈대아교회(Chaldean Church) 또는 아시리아 동방교회(Assyrian Church of East)로 명명하며 서방기독교와 분리를 선언하고 동방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천명했다. 동방기독교는 네스토리우스의 선교교리를 적극 수용했고, 헬라어 학술서적과 성경을 당시의 언어인 시리아어로 번역하는 등 학술연구와 번역, 의학연구에 힘을 쏟았다. 이들은 무역, 학문, 의술 등의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선교하여 이동하는 곳마다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문자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다.⁷⁾ 무역과 학술, 번역활동을 통해 선교한 동방기독교는 635년 중국 황실의 초청을 받고 종교사절단을 파견하여 중국에 기독교를 전했다.

2.2 경교의 기독교적 정통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 기독교를 전한 동방기독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전한 정통기독교였다. 서방기독교와 선을 긋고 출발한 동방기독교는 기독교 교리에 충실한 모범적인 생활과 선행으로 속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는 동방기독교 선교에 동력으로 작용했다.

당 태종은 집권 후 서역과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개방적인 문화정책을 시행하면서 페르시아의 셀루키아-크테시폰 동방기독교 본부에 종교사절단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635년 알로펜을 단장으로 중국에 입국한 21명의 동방기독교 공식사절단은 638년 경교의 첫 번역결과물을 완성했고, 이를 읽은 태종은 745년에 경교의 중국 포교를 허가하고 경교 사찰 건축을 국고로 지원했다.⁸⁾ 현종

인이 공존했기 때문이다(王蘭平 2008b: 338). 따라서 현재 혼재하는 경교의 영문 번역어 중에서 그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정체성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빛의 종교’를 뜻하는 번역어 ‘Luminous Religion’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선교사역 외에도 동방기독교는 과학기술과 의학 등의 왕성한 학술 연구와 번역활동을 통해 찬란한 이슬람문화의 기초를 놓았다(김호동 2002: 102-10).

8) “대진국 아라분이라는 높은 승려가 있었다. 그는 청운을 접쳐서 진리의 경전을 신고, 바람의 흐름을 살피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달려, 정관 9년 장안에 도착했다. 황제

(玄宗)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페르시아 왕조가 멸망하자 페르시아에 본부를 두었던 종교임을 나타내는 ‘파사(波斯)’라고 쓴 것을 로마를 뜻하는 ‘대진’으로 바꾸어 현관 자체를 교체해 주었다.⁹⁾ 경의의 명칭은 전래 초기 ‘파사경의’에서 ‘대진경의’로 바뀌었다. 이처럼 경의는 중국 황제의 비호 하에 선교활동을 펼치며 210년간 중국의 공인된 종교로서 발전할 수 있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이단 판결은 중국 고대기독교 경의의 정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의가 기독교의 한 이단 분파라는 낙인이 찍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기독교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는 동방기독교에서 유래된 경의의 정통성을 부정하여 경의의 전래 의미와 번역의 가치를 축소시켰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선도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네스토리우스의 이단 낙인을 뗀 첫 번째 인물이었다. 성모 마리아 숭배를 반대하는 등 로마 가톨릭의 병폐 개혁을 주장한 마르틴 루터는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적 견해에 오류가 없고 시릴의 정치적 야심에 희생된 네스토리우스는 교리적으로 이단성이 없다고 말했다.¹⁰⁾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이 1,100여 년 후의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는 재상 방현령을 시켜 의장대와 함께 서쪽 교외로 보내, 각듯이 환영하여 대궐로 모셔오게 했다. 황실 서각에서 경전을 번역케 하고 내전에서 도를 물어 보았다. 그것이 옳고 참됨을 깊이 알게 되니 특별히 명령을 내렸다. 정관 12년 가을 7월, 조칙을 내렸다(大秦國有上德曰阿羅本 占青雲而載眞經 望風律以馳難險. 貞觀九祀 至於長安. 帝使宰臣房公玄齡總仗西郊 賓迎入內. 翻經書殿 問道禁闈 深知正眞 特令傳授 貞觀十有二年秋七月詔. 경의비문)” 경의비에는 방점과 띄어쓰기가 없어 학자에 따라 오늘날까지 끊어 읽기와 해석이 각각 다르지만, 이 번역은 김호동(2002: 128)을 참조했다.

9) 이 사실은 역사서인 『당회요(唐會要)』49권에도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보 4년 9월 조서를 발행하여 알리니 파사 경의는 대진으로부터 시작 되어 오래도록 중국에 널리 퍼졌고 초기에 에베당을 건축했었다. 그 명칭의 경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근본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두 도시 [장안과 낙양] 의 파사사를 대진사로 이름을 바꾸며, 모든 부(府)와 군(郡)에 위치한 것도 역시 이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天寶四載九月詔曰 波斯景教出自大秦, 傳習而來久行中國, 愛初建寺, 因以爲名, 將愆示人必須其本, 其兩京波斯寺, 宜改爲大秦寺, 天下諸府郡者亦宜準此.)”

10) 마르틴 루터는 『종교회의와 교회론(Von den Konzilli und Kirchen』(1539)에서 에베소 공의회(431)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네스토리우스의 기독교적 정통성을 인정했다.

지속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와 이단 단죄사건 후 1543년 뒤인 1994년 11월 11일 서방기독교는 이 사실에 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했다. 서방기독교 대표 요한 바오로 2세와 동방기독교 수장 말딩카 IV세는 로마에서 회동하여 과거의 갈등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1,500년의 논쟁이 종결되었음을 공동성명문을 통해 발표했다(이수연 2013: 48). 이는 동서기독교의 화합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방기독교와 경교의 정통성을 공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경교의 『성경』 번역

당 태종의 초청으로 중국에 온 외국인 번역자가 황궁에서 시리아어 성경을 중역(中譯)하기 시작했다. 사료를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번역자는 알로펜(Alopen)과 아담(Adam) 두 사람 뿐이다. 경교 문헌의 번역어 선택과 번역 방식으로 번역문헌을 분석할 때 이 두 사람 외에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미상(未詳)의 번역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3장에서는 번역자를 중심으로 번역문헌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돈황 석굴에서 발굴한 경교의 번역문헌은 6부이다. 여기에 경교비의 비문을 탁본하여 문헌에 포함시키면 경교의 중역 연구 텍스트는 총 7부이 된다. 다음은 비문을 포함한 7부의 문헌을 번역자와 함께 생성연대순으로 배열하여 고찰하고자 한다.¹¹⁾ 경교의 번역문헌은 1,300년 전 외국인 번역자에 의해 수행된 번역문이기 때문에 고문의 문장구성이 독특하고 속자(俗字)로 필사되어 있어 학자마다 그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요구된다.

11) 1940년대에 고지마(小島)는 리성퇴의 소장품 중 경교 문헌을 발견하여 『대진경교선원지본경(大秦景教宣元至本經)』과 『대진경교대성통진귀법찬(大秦景教大聖通真歸法讚)』을 공개했다. 이를 소위 ‘고지마 문서(小島文書) B’라고 부른다. 고지마 문서는 2006년 하남성 낙양의 경당이 출토되면서 문헌 내용을 비교 대조한 결과 위작인 것으로 드러났다(聶志軍 2010a: 9). 위작으로 밝혀진 두 문헌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3.1 알로펜(Alopen, 阿羅本)과 그의 번역 문헌

당시 경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교정책을 폈다. 하나는 약리학의 축적된 지식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료선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번역을 통한 문서선교였다. 전자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후자는 문화와 외국어를 익혀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성과가 더디게 나타났다(王治心 2004: 34). 알로펜¹²⁾은 입국한 지 3년 만에 최초의 중역성경 『예수 메시아경(序聽迷詩所經)』을 번역했다. 번역문 안에서 기독교 핵심교리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통일되지 않은 여러 개로 쓰이고 있는데, 이를 번역문 필사 과정에서 생긴 필사자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이 점을 근거로 알로펜의 번역방식은 성경 교리에 해박한 알로펜이 구역(口譯)하고 한자와 한문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가 번역문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알로펜을 통해 시작된 경교의 초기 번역문헌은 그가 가져온 고대 시리아어 『페쉬타(Peshitta)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그는 중국적 가치와 전통에 충돌되는 성경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중국인 독자가 수용 가능한 기독교 가치들만 불교와 도교 용어를 사용해 편역(編譯)했다. 알로펜은 중국어 문장구사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격의번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중국 종교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것으로 본다. 알로펜의 번역은 이질적인 문화권 안에서 교리를 훼손하지 않고 충실하게 원문의 의도를 잘 전달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³⁾ 그는 기독교의 핵심진리를 발췌해서 『예수메시아경』과 『일신론(一神論)』을 편역했는데, 이 두 문헌에 ‘대진경교’라는 번역어가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경교의 초기 번역문헌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 경교의 주교였던 알로펜의 이름은 경교비 외의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Abraham)’ 혹은 ‘사도(Rabban)’의 음역일 것이라 추측한다(이관숙 2006: 64).

13) “알로펜의 번역 문헌은 비록 불교·도교 용어로 가득 차 있지만, 복음의 내용과 교리적인 면에서는 알로펜은 기독교의 교리, 더 확실히 말하면 경교의 본질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縱上所述, 可見阿羅本文典盡管充斥着佛道教名詞, 但不論在福音宣講方面, 還是在教義傳述方面, 阿羅本基本上都忠實於基督教的或更確切地說是景教的本色. 翁紹軍 1996: 29)”

3.1.1 『예수 메시아경(序聽迷詩所經)』

『예수 메시아경』은 170행 2,845자로 이루어졌고 안타깝게도 뒷부분은 소실되었다. 알로펜이 중국에 입국한 후 3년 뒤 638년 완성한 경교의 첫 번역서이며, 경교의 번역문헌 중 두 번째로 긴 문헌이다. 이는 돈황 석굴에서 발굴된 후 1922년 일본 타카쿠스(高南順次郎)가 매입하였고,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서청(西廳)’과 ‘迷詩所(미시소)’는 각각 ‘예수’와 ‘메시아’의 시리아어를 음역한 것이다.¹⁴⁾

내용은 구약과 신약의 주요 내용인 ‘하나님 여호와(天尊序婆)’에 대한 신론(神論), 윤리,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소개한다(황정욱 2005: 71-94). 특이한 것은 신론부분에서 후기 문헌인 『일신론』보다 황제 경배와 충효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 메시아경』의 신학적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분석할 때 정통 기독교 교리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¹⁵⁾ 그 뒷부분에 ‘십원(十願)’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성경의 십계명의 순서와 부분적 차이가 있다.¹⁶⁾ 그러나 ‘십원’과 구약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관계성을 분석해 볼 때, 이질적인 환경에서 교리를 부드럽게 전하기 위해

-
- 14) 하네다는 ‘聽’은 ‘聽’의 오자로, ‘序聽’의 발음 ‘예수’라는 ‘yisho’라 주장한다. 시리아어 발음의 ‘메시아’를 음역하면 ‘迷師訶’, ‘彌施訶’인데 ‘迷詩所’는 ‘迷師訶’를 필사하면서 실수로 기록한 오자일 것으로 추측한다(김호동 2002: 136-13).
- 15) 이장식(1973: 159)은 “경교가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와 성서의 진리와 위배되는 교훈을 주었거나 그것들을 왜곡시킨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경전에는 곳에 따라 지나칠 정도로 불교적 용어와 표현들이 들어 있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교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 복음 전달을 빠르게 또 쉽게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평가한다.
- 16) ①계악(諸惡)을 거부하라. 천존을 거역하는 것은 孝가 아니다 ②부모를 孝養하고 받들어 모시기를 거르지 않으면, 임종의 때에도 天道를 얻어 (천국의) 집을 얻게 될 것이다 ③(누락) ④남에게 선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⑤살생하지 말며, 남에게 살생하도록 하지도 말라 ⑥남의 부인을 간음하지 말라 ⑦도적질하지 말라 ⑧남이 부귀하여 전택과 노비를 가져도 질투하지 말라 ⑨처자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문서를 꾸며 남을 모해하지 말라 ⑩남의 물건을 받거나 비용을 취하지 말라(김호동 2002: 139).

‘십원’ 각각의 조항 안에 ‘십계명’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십계명’으로 간주한다(田海華 2009: 119-12). 이 문헌은 또 예수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烏梨師儉沒)’이라고 기록했고, 신명(神名)이 통일되지 않게 ‘迷詩所’, ‘迷師訶’, ‘彌施訶’ 등을 혼용하며, ‘예수’를 ‘움직이는 쥐’를 의미하는 ‘移鼠’라는 한자로 기록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한자와 한문 숙달이 미숙한 전래 초기 문헌임을 알 수 있다. 『예수 메시아경』은 성경을 저본으로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기독교 핵심 교리를 발췌번역 했지만, 최초의 중역 『성경』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朱謙之 1993: 118).

3.1.2 『일신론(一神論)』

『일신론』은 현존하는 경교 번역문헌 중 가장 많은 성경 내용을 번역한 책이며, 돈황 석굴에서 발견된 후 일본의 도미오카(富岡謙藏)가 매입하여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가 7,000여 자로 경교 문헌 중 가장 길다. 앞부분이 소실되었고 잔권 60행의 「유제이(喻第二), 146행의 「일천론제일(一天論第一)」, 그리고 199행의 「세존포시론제삼(世尊布施論第三)」으로 제목을 붙인 세 개의 글로 되어 있다. 「유제이」와 「일천론제일」은 유일신에 대해 강조하면서 유일신의 우주 만물 창조에 대해 중국 독자에게 친숙한 불교의 교리 용어를 차용해 설명한다. 「세존포시론제삼」은 앞 600여 자는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7장 14절까지의 내용이고, 뒷부분에는 3년 6개월의 전도를 마친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소개하면서 실천적 삶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교 안에 1세기 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이 계승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유대 그리스도교는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 이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경교의 번역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이 중국의 경교로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황정욱 2005: 114, 158).

『일신론』 말미에 예수가 탄생한지 641년이 됐고 현재 로마(拂林)¹⁷⁾ 사람 전부와 페르시아인 다수가 세존(世尊)을 믿고 예배한다는 덧붙여진 문장을 통

해 알로펜이 장안에 온지 10년째 되던 해에 번역이 완성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신론』은 문장의 완성도와 번역어 선택은 중국에 온지 3년 만에 번역한 『예수 메시아경』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다. 신명으로 ‘天尊’ 이외에 ‘一神’을 주로 사용했으며, ‘메시아’는 ‘彌師訶’로 통일성을 보이고 있고, 『예수 메시아경』에서 ‘涼風’으로 쓴 ‘성령’은 ‘淨風’으로, ‘예수’는 ‘翳數’라는 번역어를 채택하고 있다(황정욱 2005: 95).

3.2 아담(Adam, 景淨)과 그의 번역 문헌

아담은 경교의 초기 번역자 알로펜보다 100여 년 후의 인물이다. 아담은 알로펜보다 능숙한 중국어 구사력과 문장력을 갖추었기에 번역어도 통일되고 번역문이 안정적이다.¹⁸⁾

아담은 번역능력을 인정받아 불경번역에도 참여했다. 782년 장안에서 복인도 출신 불교 승려 반야삼장(般若三藏, Prajna)이 『대진이취육파라밀다경(大秦理趣六波羅密多經)』을 번역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보완해 줄 사람을 청했을 때 아담이 추천됐다. 반야삼장이 산스크리트어(梵語)를 소그드어(胡語)로 번역하고, 아담이 다시 시리아어에서 중국어로 중역(重譯)하는 과정을 거쳐 아담과 반야삼장은 『대진이취육파라밀다경』을 공동번역 했다(김호동 2002: 145참조). 이에 대해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教目錄)』 17권에 788년 아담이 『대진이취육파라밀다경』을 반야삼장에게 중국어로 번역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담의 경교 번역이 불경번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한다. 번역학과 비교언어학의 관점에서 아담의 『대진경교삼위몽도찬(大秦景教三威蒙度贊)』과 반야삼장의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의 언어를 비교 분석해 보면 고유명사와 문장 구조, 그리고 번역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두 번역경전의

17) 경교 문헌에는 로마를 ‘大秦’과 ‘拂林’이라는 두 가지 번역어를 쓰고 있다. ‘拂林’은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olis)’의 ‘Polis’에 대한 음역이다.

18) 아담이라는 이름은 경교비 측면에 시리아어로 기록되었고, 한자 ‘大秦寺僧景淨述(대진사 주교 경정이 쓰다)’의 기록을 통해 아담과 경정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당 조정에서 관직을 맡았고 안사(安史)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이사(伊斯)의 아들이다. 중국에서 관직을 맡은 이사의 아들 아담은 비교적 오랜 시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문과 중국어 실력을 닦았을 것이다.

저작연대로 볼 때 아담의 번역이 선행됐으므로 아담이 반야삼장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동안 경교의 번역을 무분별한 모방이라고 비난했던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새롭게 경교번역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교가 유불도가의 어휘를 다수 차용해 번역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경교가 불경번역에도 영향을 미친 상호간의 교섭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王蘭平 2007a: 177-18).

3.2.1 『지현안락경(至玄安樂經)』

돈황 석굴에서 발굴된 『지현안락경(이하 『안락경』)』은 159행 2,596자로 구성되어 있다. 1928년 하네다(羽田亨)는 천진(天津)의 리성뒤(李盛鐸 1859~1934)의 집에 소장된 이 문헌을 필사하여, 1929년 8월 「경교 경전 지현안락경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황마지 위의 기록된 문장 구성과 전반부 10행 이하가 소실된 상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1935년 12월 『안락경』을 포함한 경교 문헌들이 일본으로 밀반입되어 경도제국대학 본부 총장실에 소장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후 무전과학진흥재단(武田科學振興財團) 행우서옥(杏雨書屋)으로 옮겨졌다. 행우서옥의 돈황문헌출판사업에 선정된 이 문헌은 2010년 4월 원문 전체가 공개됐다(陳濤 2012: 38-41).

『안락경』은 아담의 문헌 중 가장 먼저 번역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경교’라는 표현만 등장하고 ‘대진(大秦)’이라는 수식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어휘는 745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안락경』은 아담의 세 번역문헌의 집필 순서 중 가장 초기 작품으로 본다.

표제의 ‘현(玄)’은 ‘오묘하다’라는 의미로 도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휘인데, 『안락경』에서는 기독교적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도(道)’를 지칭한다. ‘안락’ 역시 도교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예수를 통한 기독교 최상의 안식과 기쁨을 뜻한다. 내용 중 ‘성령’을 ‘羅稽’¹⁹⁾로 표현하고 ‘경교’라는 어휘의 등장으로 미루어 경교비와 유사한 시기의 문헌으로 추측한다(李超 2012: 40).

『안락경』은 메시아와 제자가 안락의 도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

19) ‘성령’의 히브리어 발음 ‘루아흐(Rukh)’의 음역.

다. 이러한 문장방식은 당시 불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고, 배경 장소 역시 신약 성경과는 거리가 먼 ‘정허당(淨虛堂)’으로 설정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이 『도덕경』과 흡사하고 도가적 어휘를 빈번히 쓰고 있어 도가 문헌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정욱은 신학적인 면에서 번역내용을 분석할 때 이 문헌은 종교 혼합주의적 색채를 찾아볼 수 없고 기독교 신학과 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황정욱 2005: 228). 또한 번역학적 관점에서 이 문헌은 “경교의 중역성경 역본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며, 당대 번역문학의 걸작(它是景教文典中文字最美的一篇, 被譽爲唐代譯文學中的一朵奇葩)”으로 평가된다(翁紹軍 1996: 38).

3.2.2 『대진경교선원지본경(大秦景教宣元至本經)』

『대진경교선원본경(이하 『선원경』)』은 20세기 초에 문헌의 일부가 소실된 상태로 돈황에서 발굴되어 리성뒤가 소장하고 있었다. 리성뒤는 이 문헌을 당시 보인대학 총장 천웬(陳垣)에게 필사를 부탁했고 이 필사본은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현재는 하네다가 촬영해 보관한 『선원경』의 사진본만 존재한다.²⁰⁾

2006년 7월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에서 팔각 돌기둥 경당(經幢)이 하부가 비스듬하게 잘려나간 상태로 출토됐다. 『대진경교선원지본경』과 『당기(幢記)』가 새겨진 경당의 잔존하는 상부 크기는 최고 높이 81cm, 최단 높이 59cm, 둘레 112cm이다. 잔존하는 경당에는 『선원경』 431자, 『당기』 348자, 제기(題記) 16자, 축사(祝詞) 14자 등 모두 809자의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돈황과 낙양의 『선원경』은 내용과 제기 등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원본에서 필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번역문헌의 집필 시기는 늦어도 781년 이전일 것으로 추측한다(李超 2012: 50). 다만 돈황본은 낙양본에 비해 오자가 많은 편이고, 필사자의 실수로 제목에서 ‘지(至)’를 누락시킨 것으로 추정한다. 낙양의 『선원경』 경동이 발굴됨으로써 더 풍부한 『선원경』 내용을 확보하게 되어 그동안 혼

20) 사에끼는 천웬의 『선원경』 필사본을 직접 보았고, 그 필사본은 11행 190자라고 『유관중국경교문헌여유적(有關中國景教文獻與遺跡, The Nestorian Documents and Relics in China)』(1951)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하네다가 촬영한 사진본에는 27행으로 된 문헌으로 남아있다(黃昌淵 2013: 40).

란스럽던 경교 사본 문헌 중 위작을 판별해 냈다. 이를 통해 경교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경교 연구에 큰 발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다(聶志軍 2010a: 18-20).

『선원경』은 창조주의 창조를 소개하며, 인간을 향한 공평한 섭리를 펼치는 신에게 의탁함으로 죄를 이겨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문헌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가의 용어를 빌어 중국의 윤리가치와 충돌을 자제해가며 번역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다.

3.2.3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

1620년대²¹⁾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부근에서 800년간 땅에 묻혀 있던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 이하 경교비)가 우연히 발굴됐다. 경교비는 높이 총 2.77m, 폭 약 0.86m, 두께 0.25m이며 전체 무게는 약 2톤 정도이며, 현재 섬서성 비림박물관(碑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비석 상단에 ‘대진경교유행중국비’라고 크게 새겨 있고 경교 특유의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다. 비에 새겨진 중문은 32행, 1,780자이고, 하단과 좌우측에는 70명이 넘는 경교 사제들의 이름이 중국어와 시리아어로 병기되었고, 비문 기록에 의하면 당 덕종(德宗) 건중(建中) 2년(781) 1월 7일 일요일에 서안부(西安府)의 대진사 경내에 세워졌고, 비문은 아담(景淨)이 문장을 짓고, 비석의 글씨는 여수암(呂秀岩)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글씨는 당대의 일류 명필인 저수량(褚遂良)이나 구양순(歐陽詢)의 글에 뒤지지 않아 이 글씨가 탁본되어 현대 성경책의 제목에 사용되었다(김호동 2002: 120-12).

경교비문을 통해 동방기독교가 언제 중국에 전래되고, 어느 경로를 통해 전파됐는지 알 수 있기에 경교비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비문에는 중국 고대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고, 당 왕조 150년간 전국적인 포교 활동과 성경번역을 수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7세기는 서구 전역에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

21) 경교비의 발굴연대에 대하여 1623년, 혹은 1625년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아직 정설화 되지 않았다. 경교비 출토장소에 대해서도 장안 의녕방(義寧坊) 대진사(大秦寺)라는 주장과 장안의 서남쪽 70km 거리의 주질현(整屋縣) 대진사라는 이견이 있다.

었다는 사실은 해외 학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경교비 발굴을 계기로 경교에 대한 학술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대표적 인 초기 연구자로는 이지조(李之藻)가 있다. 그는 경교비가 발굴되기 이전에 천주교 사상을 받아들였고, 마테오 리치(Matteo Richii, 利瑪竇)에게 세례를 받아 이미 천주교도가 된 상태였다. 서양 선교사를 통해 받아들인 기독교가 이미 고대 중국에 존재했던 사실을 알리는 경교비는 이지조를 경교 연구에 몰입하게 했다. 당시 명나라에 선교사로 와있던 외국의 학자들은 중국 고문(古文)에 능숙한 이지조의 도움을 받아 비문을 라틴어, 포르투갈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번역해 로마 교황청에 보고하고 서구 사회에 소개했다.²²⁾ 초기 경교에 대한 연구는 경교의 진위와 비문 해석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경교비는 그 내용을 교리, 역사, 건립 이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교리 부분에서는 유희도의 용어를 사용해서 창조주, 죄, 타락, 그리고 구원자 메시야의 탄생과 죽음과 승천을 소개하고, 경교의 성경과 신도의 신앙관습을 소개하고 있다. “24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圓二十四聖有設之舊法)”와 “성경 27부를 남기셨다(經留二十七部)”라는 구절을 통해 경교가 정경화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39권으로 편집해 사용하는 성경을 당시 유대인들은 24권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구약을 지칭하는 ‘구법’을 24권이라 했다(정학봉 2009: 239-24). 그리고 27부는 신약 성경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경교의 신학적 기반이 정통 기독교와 동일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경교의 번역 저본이 오늘날의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문은 635년부터 781년까지 150년 동안 태종, 고종(高宗), 현종(玄宗), 숙종(肅宗), 대종(代宗), 덕종(德宗) 여섯 황제의 경교에 대한 호의와 재위기간 중 경교의 교세 확장을 연대별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동안 감추어진 경교 역사를 고증하는 사료로써도 그 가치가 높다. 뒷부분에는 비석 건립자 이사(伊斯)의 공덕을 칭송한다. 외국인 신분으로 당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그가 경교 신자로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22) 경교비 발굴 당시 서구의 경교 연구자들은 대부분 중국 선교사로 와 있던 세미도(Alvaro de Semedo, 曾德昭), 트리겔트(Nicolas Trigault, 湯若望), 디아즈(Emmanuel Diaz Junior, 陽瑪諾), 자크로(Jacque Rho, 羅雅谷) 등 천주교 신부들이었다(計翔翔 2002: 130-13).

845년 무종의 불교를 탄압정책이 시행되면서 외래종교라는 이유로 경교도 탄압을 받으면서 210년의 경교 전성기의 역사를 기록한 경교비는 깊은 땅 속으로 묻혔다. 경교신도들이 중국의 변방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 역사 자취를 보존하려는 의도였으리라 추측된다. 1625년 최초의 경교비문 라틴어 번역이 발간된 이후 수십 종의 번역과 주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은 오늘날까지 그 해석과 번역에 대한 주장이 분분하다.²³⁾

3.2.4 『대진경교삼위몽도찬(大秦景教三威蒙度讚)』

『대진경교삼위몽도찬』(이하 『삼위몽도찬』)은 1908년 프랑스 펠리오(Pellio)에 의해 발굴되어 1909년 전문이 공개된 돈황 문헌으로 현재는 프랑스 파리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²⁴⁾. 총 44행의 『삼위몽도찬』은 누가복음 2: 14절을 근거한 동방기독교의 시리아어 ‘대영광송(Gloria in Excelsis Deo)’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경교 예배의식에 사용했다. 『존경』에 기록된 경교의 번역 문헌 목록 중 『삼위찬경(三威讚經)』과 동일 문헌으로 간주한다.

황정욱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기를(God of Trinity receive Songs and Praises!)’이라고 이 문헌의 제목을 번역한다. 『삼위몽도찬』은 삼위일체 창조주를 어느 한 위격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찬미하면서 신에 대한 경외심을 노래하고 있다. 서방기독교의 원죄론 사상은 언급되지 않고 은총이 가득하고 자비로운 신에 의존해 인간의 참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찬송시이다. 『삼위몽도찬』은 다른 번역문헌과 마찬가지로 유불도의 어휘를 다수 차용하였다. 이 문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번역문에 인명이 많이 출현하여 당시의 어음을 추적 연구할 수 있는 언어학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읽히는 화합역본성경 음역어휘와 비교하여 인명 번역어를 표로 제시하면

- 23) 『역경(易經)』에서 30곳, 『시경(詩經)』에서 30곳, 『춘추(春秋)』에서 20곳, 그 외 『경서』에서 50곳, 『史書』에서 100여 곳, 『字書』에서 30곳 등 다수의 중국 고전을 인용하고 있고, 그 외 불교와 도가 경전 어휘까지 다수 차용하여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기독교 용어의 한문표현의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장세화 2012: 42-44).
- 24) 펠리오에 의해 발굴된 경교 문헌을 P.3847이라 한다. 『삼위몽도찬』, 『존경(尊經)』, 존경 말미에 부가된 『안어(按語)』가 여기에 속한다.

다음과 같다(黃昌淵 2013: 47참조).

〈표2〉 『대진경교삼위몽도찬』의 인명 중역어휘 비교

한글 성경	삼위몽도찬(9C)	화합역본(1919년)
요한	罕難	約翰
누가	盧伽	路伽
바울	寶路	保羅
모세	摩薩吉思	摩西
호세아	何薩耶	何西阿
엘리아	以利耶	以利亞

『삼위몽도찬』은 중국 최초의 성가(聖歌)라는 점에서 번역문학으로써 가치가 매우 크다. 당대에 유행하던 칠언시(七言詩) 형식으로 압운 처리한 이 번역문은 낭송하기에도 아름다워 1940년 중국 천주교회가 발행한 찬송집 『보천송가(普天頌歌)』 안에 편집되어 오늘날까지 노래되고 있다(任東昇 2007: 349-35). 이 사실은 독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어휘와 형식에서도 자국화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을 실현한 번역문학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²⁵⁾

3.3 번역자 미상(未詳)의 번역 문헌

경교의 번역자로는 알로펜과 아담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번역자가 있다. 알로펜은 초당(初唐)에 활동했고, 아담은 만당(晩唐)에 활약한 번역자이다. 경교의 번역 문헌 중 『존경(尊經)』과 『선원경』은 일설에는 아담의 번역이라고 주장하는데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두 번역문헌은 아담 이후 미상의 번역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25) 고대 서양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종교경전에 대해서만은 독자의 가독성보다는 원문을 존중하는 직역을 주장했다. 동일 어족에 속한 서구 국가들은 직역방식의 성경번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키케로의 번역주장은 서양 성경번역원칙에 기초가 되었다. 반면 중국 경교의 번역은 독자의 가독성을 중시하여 문장 구법과 번역어 선택에서도 자국화 번역전략이 확연히 드러난다. 허명수는 독자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번역의 조건 중 하나로 독자 중심의 번역을 꼽는다(2014: 301-30).

『존경』 마지막 부분에 ‘당태종정관구년(唐太宗貞觀九年)’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만약 당대에 쓰였다면 ‘태종황제’라고 표현법이 적절하다. 이런 화법은 당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쓰지 않고 멸망 이후에야 사용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존경』의 번역과 기록연대를 오대(五代)나 송(宋)대로 주장한다(聶志軍 2010a: 47). 그리고 아담이 찬술한 경교비문의 고유명사 번역어와 『존경』의 번역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아닌 후대의 번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문헌별 번역어의 차이는 <표1>과 같다(황정욱 2005: 265참조).

<표 1> 번역어 비교

	아담의 번역어	『존경』의 번역어
성령	淨風	廬訶
누가	利見	廬伽
바울	寶靈	寶路
로마	拂林	遏拂林

3.3.1 『존경(尊經)』

『존경』은 1908년 펠리오에 의해 발굴되었고, 고증학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이 문헌은 삼위일체 신을 경배하는 기도, 22인의 경교 위인을 위한 기도, 성경 35부의 저자를 위한 기도문으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헌의 세 번째 성경 35부의 저자를 위한 기도 내용 중 성경 목록 중 35부 중 현재까지 발굴된 『안락경』, 『선원경』, 『삼위몽도찬』 세 권이 포함되어 있다(황정욱 2005: 268). 35부의 목록 중 그리고 구약 6권, 신약 5권과 신약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 2권은 책의 내용이 오늘날의 성경 목록과 비교해 성경의 어느 책에 해당하는지 미루어 알 수 있지만,²⁶⁾ 마니교 경전으로 규명된 3권

26) 35부의 성경 목록 중 제목으로 그 내용을 추측하여 알 수 있는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구약에는 창세기(渾元濟), 출애굽기(牟世法王經), 시편(天寶藏經), 다윗왕의 시(多惠聖王經), 호세아(烏沙那經), 스가랴(刪河律經)가 있다. 신약 목록에는 복음서(阿思瞿利律經), 사도행전(傳化經), 바울 서신(寶路法王經), 에베소서(遏拂林經), 요한계시록(啓眞經)과, 예수의 기사와 이적에 관한 기록(彌施訶自在天地經)과 세례

을 제외한 16권은 어휘의 변화로 인해 목록의 책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존경』의 마지막 4행은 본문의 기도문과는 관계가 없이 부연된 내용이다. 이 부분을 소위 ‘안어(按語)’로 분류하는데, 이 부분에는 경교가 전래되면서 시리아어 성경과 기독교 경전 530권을 중국으로 가져왔고, 그 중 30권을 번역하고 나머지는 원본 그대로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⁷⁾

4. 경교의 번역 특징

경교의 번역은 『성경』을 축자번역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독교의 핵심진리만을 간단히 발췌하여 번역하는 형식을 취했다. 당시에는 성경 전권을 번역할 수 있는 어학적 능력이나 인적 인프라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⁸⁾ 경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두 외국인 번역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외국어를 도착어로 번역하는 상황은 번역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리고 유불도 사상이 이미 자리 잡은 중국에 이질적인 기독교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심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인 번역자가 수행한 경교번역은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격의번역과 신조어 창제를 꼽을 수 있다.

4.1 격의(格義)번역

격의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동한(東漢)시대에 유가와 도가의 철학적 용어를 차용하여 불교 교리를 소개했던 방법이다. 불교의 ‘공(空)’사상을 설명하면서 도가의 ‘무(無)’의 개념을 차용하여 소개하였는데, 이것이 격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외래종교였던 불교가 중국에 불교교리를 전하면서 초기 외국인 번역자

요한의 사역(報信法王經)이 있다.

27) 이 기록을 근거로 알렉산더 와일(Alexander Wylie, 1812~1887)은 『신약성경』이 이미 7세기 중엽에 번역되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蔡錦圖 譯 2000: 27).

28) 16세기 이후 중국에 온 명말청초(明末清初)의 마테오 리치 등 천주교 선교사들도 『성경』 본문을 축자번역하지 않았고 주요 내용만 발췌번역했다.

들이 유가와 도가의 어휘를 익혀 낯선 불교사상을 포장해서 소개한 것이다. 후에 중국 사회에 불교가 포교되면서 불교문화가 형성되자 내국인 조력자의 도움으로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새로운 번역 시도를 하며 불경번역은 그 전략과 경험을 축적하며 발전해 갔다.

경교는 중국인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경교를 소개하기 위해 불교의 유입과정과 동일하게 격의번역을 수행했다. ‘天尊’, ‘一神’, ‘佛’, ‘法皇’, ‘元尊’ 등의 어휘로 ‘하나님’을 번역하고 ‘예수님’을 ‘世尊’, ‘道’, ‘大師’, ‘無上一尊’, ‘景通法王’, ‘大聖法主’ 등의 어휘로 표현한 것이다. 유불도의 용어 중 경교는 불교어휘를 가장 많이 차용했다. 『예수 메시아경』은 45종, 『일신론』은 54종, 『지현안락경』은 무려 82종의 어휘를 차용했다(劉振寧 2007: 26). 따라서 격의 빈도가 높은 『지현안락경』은 성경이 아니라는 의심도 받고, 독자의 가독성과 용인력을 높이려고 유불도 어휘를 대거 차용한 번역방식은 경교의 운명을 단축시킨 원인으로 손꼽기도 한다.

그러나 경교의 격의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용어의 일시적인 차용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어휘의 의미를 확장시킨 점이다. 기독교의 핵심어휘 ‘말씀(Logos)’을 도교어휘 ‘도(道)’에서 격의번역을 했다. 도교에서 차용하긴 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기독교 어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명대의 마테오 리치와 성경 전권을 최초로 중역한 청대의 모리슨(Morison)도 이 어휘를 그대로 계승했다. 지금 어느 역본의 중역성경이든지 거의 ‘道’가 ‘Logos’의 번역어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경교의 번역과정에 격의번역이 없이 번역자와 원문 중심으로 고대 시리아 성경을 그대로 음역했다면 중국에서 경교의 생명력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격의번역을 거치면서 동방기독교는 더 이상 서역의 이방 종교가 아니라 중국의 경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聶志軍 2010b: 151). 황정옥은 유불도의 용어 사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격의를 통해 차용한 어휘들이 경교 번역문헌 기독교적 정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2005: 250-25). 경교의 번역은 중국에 생소한 이질적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도가의 어휘를 다수 차용했다. 그러나 차용한 용어는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번역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기독교의 창조원리와 구원 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경교가 도가 용어

를 차용하기도 했지만 경교의 번역이 도가 경전 서술에 영향을 주었던 점이 새롭게 알려져 번역을 통한 종교간 문화접촉현상도 볼 수 있다.²⁹⁾

4.2 신조어 창제

경교 번역자들은 격의의 방법으로 유·불·도교의 어휘를 대거 차용하기도 했지만, 경교의 교리 전달을 위해 외국인 번역자의 한계를 돌파하고 신조어를 생산해 낸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있다. 경교만의 독특한 어휘들을 음역, 의역, 음의역 합성과 모방 등의 방법으로 재창조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불교탄압정책이 시행되면서 경교의 새로운 시도로 빛어진 어휘는 경교 교세와 함께 사어(死語)가 되었다. 비록 사어가 되었지만 경교의 신조어 연구는 고대 중국어의 변천과 의미추적 등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명과 지명, 그리고 기독교 고유의 개념 등을 고대 시리아어의 『페쉬타 성경』의 발음 그대로 음역했다. ‘십자가’의 시리아어 발음을 ‘Tsurips’를 ‘慈利波’로, ‘성령’의 시리아어 ‘루아흐’를 ‘囉稽(Ruha)’, ‘盧訶寧俱沙(Ruha da qadsa)’, ‘盧何那(Ruhada)’로 번역했다.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어휘를 출발어 음가에 해당하는 중국어 발음의 한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어휘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휘의 음역만으로 독자들에게 생소한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어도 생겨났다. ‘성령’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적인 에너지로 운동력을 나타내는 ‘바람’과 같은 속성이 있는 점에 착안하여 ‘風’, ‘涼風’, ‘淨風’ 등의 어휘를 만들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인 ‘세례’를 전달하기 위해 ‘물에 침수한다’는 의미로 한 문장 안에 ‘水’가 ‘父’, ‘子’, ‘淨風’ 등을 동반할 때 ‘水’는 ‘세례를 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初人’으로 번역했는데 경교 문헌 외의 중국 문헌에는 이런 어휘는 쓰이지 않

29) 사에끼(佐伯好郎)는 도가 경전 『여조전서(呂祖全書)』에 천주와 메시아를 의미하는 ‘嘛娑訶’와 ‘密娑訶’라는 어휘가 있고, ‘그 마지막 날에 높이 계신 메시아를 만나기를’을 의미하는 시리아어의 음역어 11자의 글귀가 있으며, 그 외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절름발이가 치유되고 장님이 눈을 뜨는 등 예수가 행한 기적들이 기록된 사실들을 밝혔다.(朱維之 1991: 15-16)

왔고, 초기 경교 문헌에서만 볼 수 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사형법인데 중국에는 이런 형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에 매달려 걸리다’를 의미하는 ‘上懸高’라는 어휘를 만들어 십자가의 의미를 서술했다. 이 표현은 『일신론』에서 4회 쓰였다. ‘여호와’를 음역해서 표현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있는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自聖’이라는 어휘로 의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교의 어휘 중 모방을 통한 신조어 생성 양상을 볼 수 있다. 도교의 지존자에 대한 존칭어 ‘太上老君’의 조어 구조를 모방하여 ‘太’를 하나님을 지칭하는 ‘알로하(Aloha)’의 음역어 ‘阿羅訶’와 합성해 ‘太阿羅訶’로 ‘지존하신 여호와’를 나타내고, 도교의 지존자를 일컫는 ‘太尊’에 유일신을 의미하는 ‘一’을 합성해 ‘一尊’으로 ‘홀로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냈다. 불교의 영향력이 해처럼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佛日’이라는 불교 용어의 조어법을 모방하여 ‘佛日’의 ‘日’ 대신 景敎의 ‘景’을 합성하여 ‘景日’이라는 신조어를 창제했다. 경교의 영향력이 해처럼 높이 떠서 세상을 비춘다는 의미의 ‘景日’은 경교비문에 쓰였다. 이 외에도 경교의 ‘景’은 여러 어휘와 합성해 경교적 특징을 표현하는 어휘로 사용됐고, 외국인의 경교 신도의 한자어 이름 작명에서 자주 쓰였다(聶志軍 2010a: 275-304).

이러한 모방형 신조어 생성은 초기 알로펜의 두 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아담 이후의 문헌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번역어 선택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어휘를 차용하는 격의를 수행하지만, 도착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표현력이 확장된 단계에서는 이차적 모방과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착어 구사능력은 통번역의 표현능력 신장 뿐 아니라 번역 수행 시 타문화권에 생소한 개념을 번역할 때 번역사의 조어능력에도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을 경교의 신조어 창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5. 결론

예루살렘에서 발원한 1세기의 기독교는 동방과 서방기독교로 나뉘어 각각 발전해 나갔다. 그간에는 서방기독교 중심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경교의 유적과 문헌이 발견되고 그에 대한 연구업적이 축적되면서 동양과 중국의 고대사와 번역사에서 경교의 존재가 부각되었고, 경교의 『성경』 번역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08년 프랑스의 펠리오가 돈황 석굴에서 경교문헌의 사본들을 발견한 이래로 경교 연구가 시작됐다. 하네다와 사에키 등 일본 학자들이 사본을 분류하고, 사본별로 대조 연구함으로써 경교 연구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졌다. 모울(Auther C. Moule), 드레이크(Francis S. Drake), 포스터(John Foster) 등이 일본 학자의 연구결과들을 번역해 서양에 소개했고, 이후 이데올로기의 제약이 느슨해지면서 많은 중국 학자들이 경교 연구에 적극 합류하였다. 전통 사상과 문자에 대한 조예가 깊은 중국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고대 중국의 번역 양상과 번역어 조어방식에까지 연구범위가 확장되었다.

경교의 『성경』 번역은 번역학적, 언어학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의 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다. 경교 번역은 혼합주의, 정치세력과의 결탁, 종교정체성의 상실 등의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교 패망의 원인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1,300여 년 전 경교의 『성경』 번역은 수행된 사실만으로도 그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경교의 번역문헌 중 위작으로 증명된 것을 제외하고 연대별로 정리하면 『예수 메시아경』, 『일신론』, 『안락경』, 『선원경』, 『경교비문』, 『삼위몽도찬』, 그리고 『존경』 등 7부가 있다. 경교 최초의 번역자 알로펜은 초기 번역자로서 중국어 구사의 한계를 보이지만, 『예수 메시아경』이라는 최초의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고, 그 후 경교 번역문헌 중 성경 내용이 가장 많은 『일신론』을 번역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다. 약 100년 후 만당의 번역자 아담은 원숙한 중국어 능력을 갖추고 기독교 교리를 번역했다. 중국 번역문학의 걸작이라 평가되는 『안락경』과 돈황과 낙양에서 각각 출토된 『선원경』이 있다. 그리고 경교의 유래와 역사와 교리를 알 수 있는 『경교비문』이 있고,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는 7언시 형식으로 번역한 찬송시 『삼위몽도찬』이 있다. 이 번역문헌의 가치는 오늘날까지 노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번역문에 다수의 음역어휘가 포함되어 있어 9세기 만당시대의 어음현상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써도 의미가 있다. 번역연구를 통해 기타 학문 연구를 위한 일차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번역연구의 또 다른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당 이후로 번역 연대를 추정하는 『존경』은 창조주와 신앙 위인과 성경 저자를 위한 기도문 형식의 번역문이다.

경교의 외국인 번역자들은 이질적인 문화환경에서 독자의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격의번역을 채택했다. 이는 번역문의 독자인 중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불도의 어휘를 차용하여 독자 중심의 자국화번역을 수행한 것이다. 일부 격의번역어휘는 현재 중국 기독교 성경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말씀’을 뜻하는 격의번역어휘 ‘道’는 원래 도가에서 차용한 어휘지만 기독교의 핵심어휘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중역성경의 핵심어휘의 위치에 있다. 외국인 번역자이지만 아담은 반야삼장의 불경번역에 도움을 주었다. 경교는 도교의 어휘와 형식을 다수 차용하기는 했지만, 일방적으로 도가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교가 도교의 어휘와 주제, 그리고 서사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교는 타종교 용어의 단순한 1차적 차용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신조어를 생산했다. 중국어 표현에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적 어휘의 단순한 음역으로 시작한 신조어 창제는 의미를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어휘로의 의역과, 음의역 합성과 기존 철학 용어의 조어방식을 모방한 모방 신조어 창제로 이어졌다. 이 신조어는 경교의 쇠퇴와 함께 거의 사어가 되었지만, 경교만의 독특한 번역어휘 창제를 위해 고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지원 · 이근희 옮김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파주: 한신문화사.
 김호동 (2002)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글방.
 송강호 (2007) 『중국어 성경과 번역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모리슨.
 이관숙 (2006) 『중국기독교사』, 서울: 쿰란출판사.
 이수연 (2013) 『중역성경연구』,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 박사논문, 39-40.
 이장식 (1973) 「景敎 사상의 연구-『序聽迷詩所經』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2, 159.
 장세화 (2012) 『경교의 중국전래와 한국에의 경교유입 가능성 연구』,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역사신학전공 석사논문, 42-44.
 정학봉 옮김 (2010) 『경교(景敎), 아시아교회』, 서울: 도서출판 동서남북.

- 허명수 (2014) 「성경번역의 용인성」, 『번역학연구』 15(1), 301-30.
- 황정옥 (2005) 『에루살렘에서 長安까지』,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 計翔翔 (2002) 「明末奉教官員李之藻對“景教碑”的研究」, 『浙江學刊』 1, 133-13.
- 劉振寧 (2007) 「“格義”: 唐代景教的傳教方略」, 『貴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5(5), 26.
- 聶志軍 (2010a) 『唐代景教文獻詞語研究』,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 聶志軍 (2010b) 「唐代景教的本土化策略」, 『社會科學家』 3(155), 151-15.
- 翁紹軍 (1996) 『漢語景教文獻鈔釋』, 北京: 三聯書局.
- 王蘭平 (2007a) 「唐代敦煌漢文景教寫經研究述評」, CHINA 연구』 3, 177-18.
- 王蘭平 (2008b) 「당오대송원시기 돈황의 기독교 문헌 및 그 유물」, 『CHINA 연구』 4, 338.
- 王治心 (2004) 『中國基督教史講』,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李超 (2012) 『西域景教研究』, 新疆大學 歷史學 碩士論文, 40.
- 任東升 (2007) 『聖經漢譯文化研究』,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 田海華 (2009) 「『序聽迷詩所(訶)經』之“十願”趨議」, 『宗教學研究』 4, 119-12.
- 朱謙之 (1993) 『中國景教』, 北京: 人民出版社.
- 朱維之 (1991) 「希伯來、基督教經典漢譯史略」, 『歷史教學』 5, 15-16.
- 陳濤 (2012) 「唐代景教經典『至玄安樂經』的流向問題」, 『五邑大學學報』 14(3), 38-41.
- 蔡錦圖 譯(2000), 『神在中國-中文聖經的翻譯與流傳』, 香港: 漢語聖經協會.
- 黃昌淵 (2013) 『中國古代基督教研究- 以7至14世紀景教爲中心』, 陝西師範大學 古代歷史學 博士論文, 40-47.
- 대한성서공회 세계성서번역현황 (2015년 5월 1일 검색)
<http://www.bskorea.or.kr/bskorea/business/status/world2013.aspx#wld02>

[Abstract]

The Bible Translation of Ancient Chinese Christianity, Luminous Religion

Lee, Soo-Y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Bible has been constantly translated in the long history of mankind. Translation theories accumulated through the Bible translation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studies as an independent branch of learning. This paper considers the Bible translation in the Tang Dynasty. The Bible translation was begun in 635 by a Syrian Alopen who came to China by the invitation of the emperor Taizong. 1,380 years before the Christianity was introduced to China by the West, the Bible began to be translated by the Eastern Christians. Christianity in ancient Chinese is called Nestorianism sometimes, but Luminous Religion is more correct expression. To introduce an unfamiliar religion to China, Christianity, foreign evangelists were involved in the translation. There's a record that of the 530 Bibles brought to China, 30 Bibles were translated.

To introduce the unfamiliar Christianity, Ge-yi translation method was used in Chinese society where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prospered. Some words translated by the method have become core vocabularies of Christianity nowadays. Many words were newly created.

▶ Key Words: The Church of East, Luminous Religion, Nestorianism, Chinese Bible Translation, Ge-yi translation

이수연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sylee33555@hanmail.net

관심분야: 성경번역, 커뮤니티 통번역, 중국번역사

논문투고일: 2015년 5월 3일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8일